

간경변 환자에서의 피부위전도

충북의대 내과 제지영, 최재홍, 채희복, 박선미, 윤세진

운동장애형 소화불량증 환자들에서는 피부위전도에 대한 보고가 많으나 간경변 환자들에서의 위전도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연구는 간경변 환자에서 피부위전도를 측정하여 정상인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간경변증 환자중 복수유무, 저알부민 혈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000년 3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간경변 환자 25명과 정상 대조군 20명 등 총 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는 피부위전도(Digitrapper EGG, Synetics Medical Inc., Stockholm, Sweden)를 사용하여 위 근 전기활동을 측정하였다. 식전, 식후 3cpm의 위서파 반도가 70% 이하이거나, 고형식이 섭취 후 3cpm 위서파의 진폭이 섭취전과의 비율이 1이하인 경우를 비정상 위전도 소견으로 정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정상대조군과 간경변증에서 각각 피부위전도 지표들 사이에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p=0.5295$)
- 2) 정상 대조군($n=20$)에서 위전도소견이 비정상인 경우는 식후/식전 power ratio < 1에서 0명, 3cpm < 70%에서 2명, 양쪽 모두인 경우는 0명으로 총 2(10%)에었으며, 간경변증에서는 각각 0명, 4명, 0명으로 총 4명(16%)이었으며 통계적 의미를 보이지 않았다.
- 3) 간경변증 환자중 복수유무, 저알부민 혈증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간경변증 환자의 피부위전도는 정상인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었고 간경변증 환자의 복수유무, 저알부민 혈증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다.

인터페론 치료중인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 나타난 청력소실 1예

Sudden hearing loss in chronic hepatitis B viral patient associated with interferon therapy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 내과학교실

오재인, 정은미, 오성욱, 홍성표, 박필원, 황성규, 임규성

서론: 인터페론은 항바이러스제제로서 만성간염의 치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전신합병증이 야기된다. 골수억제, 정서불안증,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탈모, 발진, 설사등은 흔한 합병증이나 청력장애는 1994년 이후 드물게 외국에서 보고되기 시작하는 합병증이다. 주로 인터페론치료 후기에 발생하며 치료 중단 이후 7 내지 14일만에 청력이 회복되는 가역적인 합병증으로 알려져있다. 저자들은 인터페론으로 치료중인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 갑작스러운 청력소실을 경험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1세 남자환자가 7일간의 오른쪽 귀의 청력소실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14년전에 만성 B형 간염을 진단받고 97년에 6개월동안 인터페론치료를 하였으며 이후 lamivudine 유지요법을 시행받았다. 2001년 5월에 시행한 간기능검사상 HBV DNA 음성에서 786 pg/mL로, AST 25 IU/L에서 75 IU/L로, ALT 23 IU/L에서 146 IU/L로 수치 상승하여 시행한 간조직검사상 중등도 활동성의 만성 간염(병기 III)과 초기간경화 소견 보여 인터페론 재치료를 시작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 가족력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내원당시 시행한 청력도 검사상 오른쪽 귀의 골전도/공기전도가 55/60 dB이었으며 고실내 맥사메타손 주입 2일후 31.6/33.3 dB로 회복, 하루후 26/26dB이하의 정상소견 보였다. 현재 환자는 외래 추적관찰 중에 있다.